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11:00 - 12:00

□ 장 소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3층 달콤한방

□ 참석자 : 8명

○ 참 석 : 7명

전구훈 위원장, 김영진 위원, 이현덕 위원, 임상혁 위원, 홍인실 위원, 김영미
위원(관장), 이영란 위원

○ 불 참 석 : 3명

임규옥 위원, 박유정 위원, 현은주 위원

○ 직 원 : 1명

김영례 부장

□ 개 회 선 언

- 11시 00분 운영위원회 총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시작하다.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계심을 안내하고, 전구훈위원장이 2025년 제 3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선언하다.

□ 보 고 사 항

- 전차 회의록보고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채택하다.

- 25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 김영례부장: 25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다. 6월~8월 사이에 발간된 카드뉴
스 모음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회의 자료에서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 추가 설명하다. 카드
뉴스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사례관리사업(1권역 통합사례회의, 사례점검회의, 희망온돌 지원
사업 등), 운영지원팀 업무(사회복지현장실습, 주방 및 옥상 방수공사, 무더위쉼터, 주민위원

회, 출퇴근 앱시트, 직원 퇴직연금교육, 유공자 표창 등)에 대해 좀 더 보완하여 설명하다.

- 임상혁위원: 회의자료 맨 처음에 나왔던 아이들 생일잔치 해주었던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 김영례부장: 아이들은 자기 생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매주 마을활동을 나가는데 복지 4팀 샘터공원에서 만난 아이들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자기 생일이 언제라고 계속 얘기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7월에 다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생일축하파티를 기획하게 되었다. 마을 활동을 하면서 생일 축하 받고 싶은 친구를 모집하고, 축하해 줄 친구들을 모집했다. 더운 여름이어서 복지관 1층 열면놀이터에서 파티를 열었다.
- 김영미관장: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다. 축하해주는 친구들 중에는 중학생들도 있었다.
- 김영례부장: 아이들이 원하는 내용들로 기획이 된 시간이었는데, 정말 정신이 좀 없었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 임상혁위원: 분기별로 하는 통합사례회의에 대해 궁금하다. 특히 회의가 그 뜻에 맞게 잘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다.
- 김영례부장: 우리 복지관이 코디역할을 하고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매월 담당기관을 지정해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전문분야에 있는 실무자들이 와서 피드백을 한다. 상하반기로 해서 그 동안 회의에서 논의했던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회의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가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상황이다.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2년마다 직원이 변경되는데 회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열심히 회의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참여하지 않고 와서도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 임상혁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어본 이유는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이 통합사례회의가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이다.
- 김영미관장: 제 생각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실무협의체와는 약간을 좀 다를 것 같다. 통합사례회의에서는 한두사례씩 하는데, 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사례가 많은 것 같고 전문가도 들어와야 한다.
- 전구훈위원장: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긴밀하게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꼭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김영례부장: 맞다. 저희 기관에서도 매년 학기말에 학교측에 연락해서 상담, 결연후원, 자원연계가 필요한 가정을 의뢰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이 연말쯤이 되면 아이들의 어려움, 가정상황을 파악하시게 된다. 그 때 저희쪽에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 학기가 시작된 이후 4월에는 학교측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에도 학교측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있다. 올 회의에서 용마중학교 지역사회

전문가 선생님이 느린학습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셨다. 그래서 대학교 사회봉사 학점을 신청한 학생을 2명의 느린학습학생들에 대한 멘토링으로 연결하였다.

- 김영미관장: 저희는 지역 학교와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임상혁위원: 최근에 상담이나 진로관련 선생님 채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
- 전구훈위원장: 이제 시범사업이라서 별도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임상혁위원: 최근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현안문제를 다루는 분위기인데, 이쪽도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질문은 고립청년 사업에 대한 부분이다. 이 친구들에게도 심리상담 같은 것이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 김영례부장: 네~ 맞다. 본인이 얼마나 동의하고 이에 대해 적극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다. 저희가 만나던 가정 청년이 한명이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고립이 되면서 지역아동센터장님의 의뢰로 몇 년째 만나고 있다. 전기가 끊긴다거나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희망온돌위기긴급지원금으로 도움을 몇 번 주었다. 지원하면서 상담을 받자고 설득을 끊임없이 시도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다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 김영미관장: 본인의 마음이 열려야 상담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다. 저희가 서울시 고립청년사업, 중장년고립가구지원사업 등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청년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더 다르게 하려고 한다. 좀 더 본인들이 나와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 임상혁위원: 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
- 이현덕위원: 본인들이 노출을 안하려고 하는 것 같다.
- 김영미관장: 네~ 맞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도 고립은 둔으로까지 가는 상황은 피하려고 지금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심해졌다. 멀쩡히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순간에 외부와 단절되는 경우도 있다. 저도 지난번에 티비 드라마를 보면서 고립상황이 되면 저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어도 아무런 행동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많이 공감이 되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 쉽게 “왜 안 나와? 힘든 일을 안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겠다 싶었다.
- 김영례부장: 네~ 그래서 최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 전구훈위원장: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이 없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좋겠다.

- 2025년 4/4분기 주요사업 보고

- 김영례부장: 2025년 44분기 주요사업을 보고하다. 카카오같이가치 모금, 중장년1인가구 소모임, 9월 23일 미니바자회, 아름인도서관 신규도서 비치, 면목품앗이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다.
- 김영미관장: 면목품앗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저희가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했던

미담사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다.

- 임상혁위원: 혹시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활동하는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모집을 하고 있다. 친환경 활동하시는 분들, 돌봄 활동가분들, 주방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 조금 더 밀접하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으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 김영례부장: 복지관 자원봉사자는 홈페이지, VMS, 대학교 사회봉사단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한다. 중장년주거환경봉사단 '면반장'에서는 신규 회원개발이 정말 힘들었다. 몇년동안 계속 모집을 했었는데 쉽지가 않았다. 작년부터 당근에다가 활동 사진을 올려서 모집을 했는데, 올해 3명을 모집했다. 일반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인 당근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 전구훈위원장: 저희 학생 중에 판교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실습한 학생이 있었는데 실습이 끝나고 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 김영미관장: 예전에는 집수리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분들에게 자원봉사 참여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사실 면목동 지역에도 은퇴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 분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
- 김영진위원: 안전점검이 교육인지 궁금하다.
- 이영란위원: 소방 법상으로 정해져있는 연간 점검이다.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소방작동과 전기설비는 연간 진행되는 점검이고, 하반기 소방안전교육은 복지관 직원,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교육이다.

전구훈위원장이 안건 심의와 논의를 마무리하고 운영위원회를 마친다. 이상으로 의안 논의를 완료하고 12시 00분 폐회를 선언하다.

<관련 사진>



운영위원회 진행